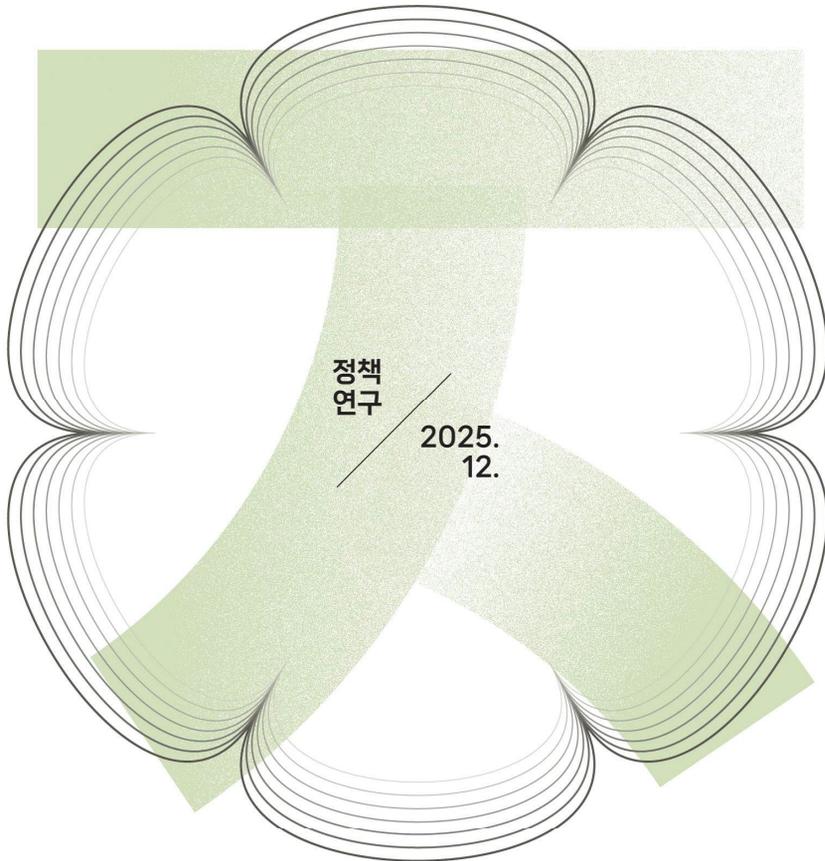


●●● 정책연구 2025-07

# 김해시 대표 예술 가야금 콘텐츠화 및 확장 방안 연구

최나리·최진훈·송지은





## 연구진 profile

---

최나리

- 연구책임
-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최진훈

- 공동연구
-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연구위원

---

송지은

- 연구지원
-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전문연구원

---



## | 요약 및 정책함의 |

###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가야금의 전승과 깊이 연관된 도시로, 가야금은 김해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 전통문화자산임
- 그러나 김해시의 가야금 정책은 그간 경연대회·축제·시립연주단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일상적 향유 확대나 관광·산업적 확장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음
- 최근 문화정책 환경은 전통문화의 단순 보존계승을 넘어, 전통 기반 창작과 콘텐츠화, 도시 브랜드 및 관광과의 연계를 핵심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김해 가야금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에 본 연구는 가야금을 단일 예술 장르가 아닌 도시 전략 문화 콘텐츠로 재정의하고, 김해형 가야금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 ■ 연구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으로 설정하되, 가야문화권 주요 유적과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분석함
- 시간적 범위는 가야금 정책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 전환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둠
- 내용적 범위는 정책환경 분석, 가야금 관련 현황 및 문제 진단,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포괄함
  - 문헌조사, 정책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하여 정책적 실증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함

### ■ 가야금 콘텐츠화 전략 및 확장 방안

-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구조 확립)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전략,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전략
- (핵심 거점 집중형 공간 전략)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전략,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 전략
- (역할 분담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구축 전략,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전략

## | 요약 및 정책함의 |

<b>비전</b>	<b>김해형 가야금 문화도시 구현</b> - 가야금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말하다 -			
<b>3대 전략 방향</b>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구조 확립	핵심 거점 집중형 공간 전략	역할 분담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b>6대 전략 과제</b>	1.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3.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5. 미래인재양성 및 시민참여 생태계	
	2.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4. 가야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화	6. 조직-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b>기대효과</b>	가야금 콘텐츠의 지속 생산 촉진	체류형 문화관광 활성화	'가야금=김해' 도시 브랜드 고착	시민 참여 기반 문화 생태계 정착

**□ 정책적 제언**

- (정책 기초)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전통 보존의 보조적 주체가 아닌, 전통 기반 창작·활용을 선도하는 지역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실행 주체)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연주 중심 조직에서 나아가, 창작·기획·확산을 견인하는 '도시 대표 콘텐츠 엔진'으로 기능 전환이 요구됨
- (가시적 전환 과제) 가야금 페스티벌은 경연·전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융합·체험 중심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즉각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함
- (콘텐츠 전략) 가야금 콘텐츠를 축제·행사 중심 운영에서 탈피시켜, 연중 상시 향유 가능한 관광·생활문화 콘텐츠로 확장해야 함
- (정책 담보 장치) 전문 인력, 자원 다각화,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함

<b>I 서론</b> .....	<b>1</b>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b>II 김해시 가야금 정책환경분석</b> .....	<b>5</b>
1. PEST 분석(거시환경 분석) .....	5
2. 정책·산업 환경 분석 .....	10
3. SWOT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14
<b>III 김해시 가야금 현황 및 종합 진단</b> .....	<b>18</b>
1. 김해시 가야금 관련 주체별 현황 및 역할 진단 .....	18
2. 김해시 가야금 관련 사업 및 인프라 현황 진단 .....	23
3. 현황 진단을 통한 문제 요인 및 잠재 기회 요인 도출 .....	36
<b>IV 가야금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분석</b> .....	<b>39</b>
1. 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	39
2. 관계자 인터뷰 분석 .....	42
3. 종합 시사점 .....	46
<b>V 가야금 콘텐츠화 전략 및 확장 방안</b> .....	<b>48</b>
1. 기본 방향 및 비전 .....	48
2. 전략과제 1: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전략 .....	50
3. 전략과제 2: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전략 .....	52
4. 전략과제 3: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전략 .....	54
5. 전략과제 4: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 전략 .....	57
6. 전략과제 5: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구축 전략 .....	62
7. 전략과제 6: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전략 .....	64
<b>VI 결론</b> .....	<b>67</b>
1. 연구 결과 요약 .....	67
2. 정책적 제언 .....	69
<b>참고문헌</b> .....	<b>72</b>



# I 서론

## 1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 배경

- 김해시는 1991년 전국 최초의 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998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가야금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등 오랜 기간 가야금 전승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전통예술의 계승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그동안의 사업 구조는 주로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 경연대회, 축제 중심의 단일 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현재의 정책 추진은 관내 중심의 공연·행사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가야금이 지닌 역사성·예술성·문화적 상징성이 현대적 문화산업, 교육, 관광 콘텐츠 개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가야금이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 브랜드로 확장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미흡함을 의미함
- 한편, 2024년 시행된 「국악진흥법」과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전통예술 보존·계승과 문화산업적 활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적 정책기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강국’ 전략은 지역 단위에서도 전통문화 활성화, 창의적 문화콘텐츠 개발, 역사문화자원의 고도화 등을 강화하고 있음
- 더불어 지역문화정책, 역사문화관광 확대, K-콘텐츠 산업 성장 등 변화는 전통예술 기반 지역문화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책·산업·사회문화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김해시는 가야금 전승도시이자 가야문화 대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가야금을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적·정책적·산업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이는 가야금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확장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2) 연구 필요성

- 김해시는 오랜 기간 가야금경연대회,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 가야금 페스티벌 등 다양한 가야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들 사업은 전통예술 보존, 공연 중심의 관내 문화정책 구조에 머무르고 있어 가야금의 문화자원화, 콘텐츠화,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연결고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가야금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비해 정책적 활용 수준이 제한적이며, 사업별 기능 중복, 성과의 확장성 부족, 정책 체계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가야금이 김해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 없이 운영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정책적·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역시 가야금 진흥 정책의 전환점을 요구함. 「국악진흥법」과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전통예술 계승과 문화산업화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역사문화·전통예술 기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전통예술 기반 관광 및 창작·교육·체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은 가야금을 단순한 전통예술을 넘어 지역문화 브랜드이자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함
- 기술미디어 환경 변화 또한 전통예술의 새로운 진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기반 문화콘텐츠 생산·유통 환경 확산은 전통음악과 창작·교육·관광이 결합된 융합형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가야금 정책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김해시는 가야금 전승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가야금을 지역의 핵심 문화자산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가야금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동향·현황 분석, 법제적·정책적 과제 도출, 콘텐츠화·산업화·관광연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야금 발전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수적임

## 2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 공간적 범위

- 김해시

#### ▣ 시간적 범위

- 1991년~2025년
  - 김해시가 가야금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가야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25년 현황까지로 설정함

#### ▣ 내용적 범위

-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의 동향·현황 분석
- 가야금 관련 환경 변화 분석
- 사례 비교 분석
-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가야금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실행 방향 제시

### 2) 연구 방법

#### ▣ 문헌 및 자료 조사

-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관련 사업계획, 예산자료 검토
-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국내외 전통예술·전통음악·지역문화정책 분야 문헌 조사

#### ▣ 사례연구

- 유관 사례 비교 분석
  - 중앙행정기관(국립국악원 등) 및 지방자치단체(고령군 등)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조사

□ 질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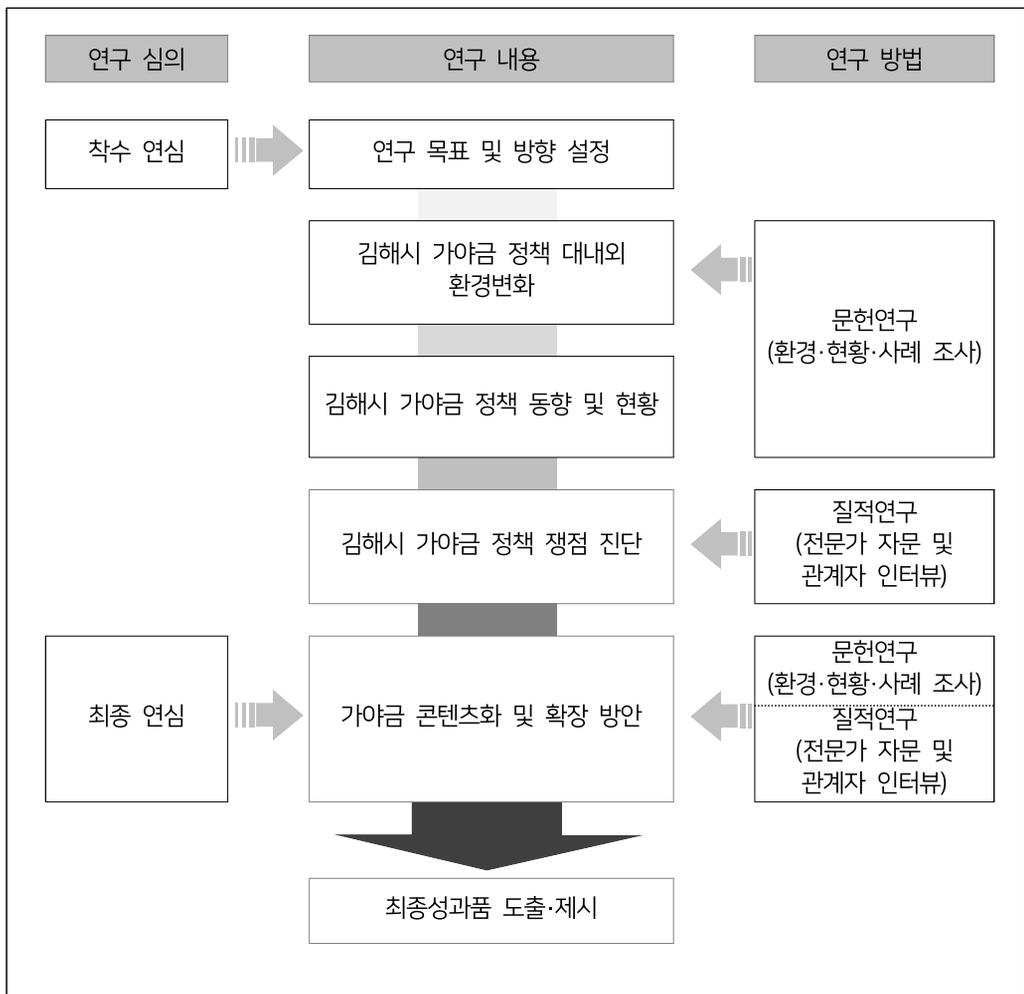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인터뷰

- 전통문화, 지역문화, 콘텐츠, 가야금 등 관련 정책 연구자, 교수, 연주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인터뷰를 실시함

○ 관계자 인터뷰

-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관계자 인터뷰
  -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김해문화원 등

□ 연구 절차 및 체계



(그림 1-1) 연구체계도

## II 김해시 가야금 정책환경분석

### 1 | PEST 분석(거시환경 분석)

#### 1) 정치·정책 환경

#####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전환

- 최근 정부는 전통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존에서 산업적 활용과 국민 향유권 확대로 전환하고 있음
- 2023년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문화 자원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종합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인력 양성, 창업·제작 지원, 유통·투자 촉진, 해외진출 등의 정책 수단이 명시되었음
- 이는 가야금과 같은 전통예술 분야에도 창작·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일상화를 통한 문화매력 제고가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가야금 등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이 적극 장려되고 있음<sup>1)</sup>
- 특히 전통문화 자원을 관리·활용하여 오늘의 모든 세대가 누리는 콘텐츠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은 김해 가야금 문화 정책의 지향점과도 일치함

##### ▣ 지역문화정책 및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정책 역시 김해에 영향이 큰 정치적 환경 요소임
- 김해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문화도시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고유 문화인 가야금을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왔음
- 김해시는 가야금을 매개로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과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경주해왔고, 2023년에는 가야 고분군(대성동고분군)이 유

1)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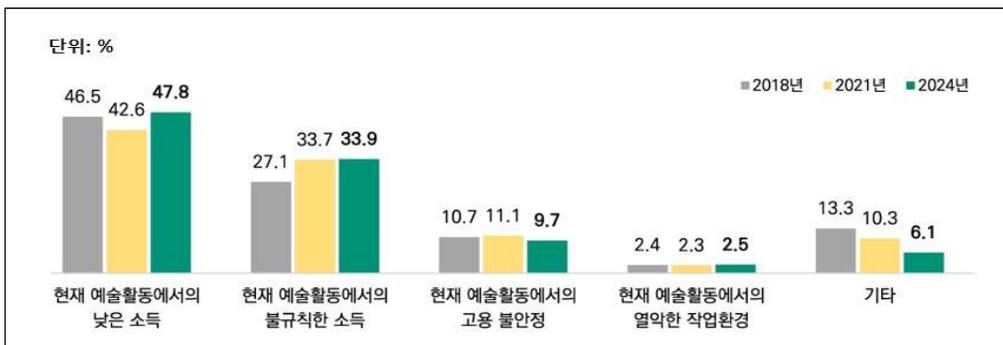
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음

- 이러한 정책·제도 환경은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호기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사업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2) 경제적 환경

### ▣ 전통예술 산업의 규모와 지원<sup>2)</sup>

- 국내 문화산업 내에서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는 아직 비중이 크지 않으나 서서히 시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음
- 2022년 기준 국악 관련 산업의 연간 총매출은 약 3,44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표본 조사 기준), 이는 전체 문화산업 매출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공연 예술단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약 2,860억 원), 전통공연 기획·제작, 국악기 제조, 국악 콘텐츠 제작·유통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음
- 이는 전통음악 분야의 경제적 기반이 아직 협소하고, 많은 전통예술 단체들이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 김해시 가야금 문화의 확장 전략에서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민간 후원 유치, 수익모델 개발 등이 경제적 관건이 될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2-1)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2)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발췌하여 정리

▣ 문화산업과 지역경제

-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이 성장하면서 전통문화 콘텐츠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주목받고 있음
-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2025-2027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산업 및 경제 분야 이슈로 ‘문화콘텐츠’와 ‘지역경제’의 연결이 중요 키워드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이 각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된 영향으로 해석됨<sup>3)</sup>
- 가야금 역시 관광자원, 공연콘텐츠로 발전시킬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김해가야금축제나 가야금경연대회에 외부 관광객과 참가자들이 방문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가야금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와 시장 개척, 민관 협력이 필요하므로 정책적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병행되어야 함

3) 사회·문화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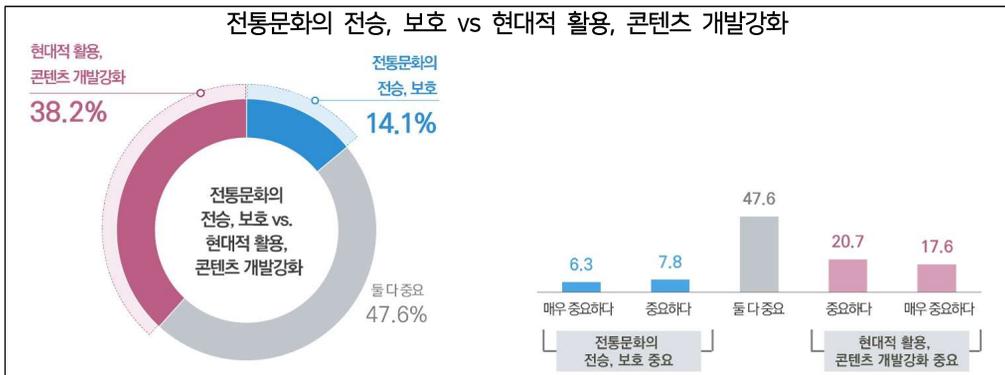
▣ 인구 변화와 문화 수요

-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전통예술 향유층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가야금의 주요 연주자·감상자 층이었던 중장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가 전통예술 지속성의 관건으로 여겨짐
-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뉴트로 열풍과 함께 전통문화를 새롭게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부도 문화정책에서 청년의 상상력을 전통문화 발전에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공동체 약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로 지역 공동체를 재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김해시의 경우 오랜 역사와 전통예술 자산을 갖춘 만큼, 가야금을 통한 세대 간 소통, 시민 문화향유 증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3) 노수경 외(202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2025-2027

### □ 대중인식과 문화다양성

- 사회 전반적으로 한류(K-Culture)의 인기로 한국의 전통문화도 재조명되고 있음. K-팝, 드라마 등으로 촉발된 한류의 관심이 이제는 전통예술과 문화로까지 확대되어 세계인이 한국 문화 전반에 주목하는 추세임
- 이러한 분위기는 가야금과 같은 전통악기의 세계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임
- 다만 국내적으로는 대중문화에 밀려 전통예술이 어렵고 낡은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대중친화적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적 활용 및 콘텐츠 개발 강화’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자는 38.2%로, ‘전통문화 전승·보호’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자에 보다 2배 높게 나타남<sup>4)</sup>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4),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

(그림 2-2) 전통문화 정책 방향

- 김해가야금축제의 경우 전통과 현대, 실내와 야외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임
- 아울러 장애인, 소수계층의 문화 접근성 제고 등 포용적 문화정책 측면에서 전통예술 교육·체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4) 김면 외(2024),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

#### □ 문화예술 트렌드<sup>5)</sup>

-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5~2027)은 향후 문화예술 환경의 핵심 변화로 한국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하이퍼로컬 기반 지역문화 강화를 제시하며, 이는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외부 환경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 ‘세계가 품은 한국문화’ 트렌드는 한류가 전통예술·생활양식까지 확장되며 한국 순수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는 가야금의 고유성과 미학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하이퍼로컬 커머스 시대’ 트렌드는 지역 고유성·로컬 스토리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가야금의 발상지로서 김해가 가진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콘텐츠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환경 요인으로 평가됨

#### 4) 기술 환경

##### □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혁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은 전통예술의 전승과 확산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디지털 플랫폼,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음악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감상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팬데믹 이후 비대면 공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국립국악원 등도 유튜브를 통해 360도 VR 가야금 공연 영상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음
- 이러한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의 도입은 가야금 연주를 가상공간에서 체험하거나, 디지털 아바타 공연으로 젊은 층에 어필하는 등 혁신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AI와 융복합 기술

-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전통음악의 창작 및 교육 지원도 변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작곡 AI를 활용해 가야금 선율에 맞는 자동반주를 생성하거나, AR 기술로 악기 연주자세를 교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전통예술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sup>6)</sup>

5) 노수경 외(202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

- 문화정책 당국 역시 생성형 AI와 기술혁신의 기회를 포착하여 전통문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술 융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다만 전통예술 분야의 기술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김해시는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며 문화 분야에도 IT 활용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가야금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ICT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융복합 콘텐츠를 선도할 수 있음

## 2 | 정책산업 환경 분석

### 1) 국가·광역 단위 전통문화·국악 정책 동향

- 최근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국악을 단순한 보존·전승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적 활용과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통해 전통예술의 창작 활성화, 청년 예술인 육성,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국악 분야에서는 공연·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화, 관광·지역브랜딩 연계,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이 강조되고 있음
- 광역 차원에서도 전통문화는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문화 확산,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악 및 전통예술은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지역 대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 환경은 김해시 가야금 정책이 기존의 경연·공연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문화·관광·산업 정책과 연계된 확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함

6) 김변 외(2024),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

## 2) 가야금·전통음악 관련 산업 및 시장 환경

- 전통음악 산업은 과거 공공 지원 중심의 제한적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공연, 교육, 관광,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가야금은 전통 악기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솔로·앙상블·융합 공연 등 콘텐츠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큰 악기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전통음악 산업 전반은 여전히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며, 예술인 소득 불안정, 유통 채널 부족, 대중 접점의 협소함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가야금 분야 역시 경연대회와 전문 공연 중심의 공급 구조가 지속되면서,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상품형 콘텐츠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임
- 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는 전통음악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온라인 영상 플랫폼, 음원 스트리밍, 실감형 콘텐츠(AR·VR), 관광형 체험 상품 등은 가야금 콘텐츠가 시간·공간적 제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시장 환경은 김해시 가야금 정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콘텐츠 개발-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적 가치사슬 구축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함

## 3) 유관 도시·지자체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전국적으로 가야금 및 전통음악을 지역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정책적 시도가 확대되고 있음
  - 고령군은 대가야 역사성과 우륵 서사를 중심으로 경연대회와 교육,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가야금 경연대회를 기반으로 국악 인재 발굴과 공연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국악 축제와 현대적 융합 공연을 통해 대중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전통음악을 지역 정체성 서사와 결합하여 브랜드화하고, 경연·공연·교육·관광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임

- 다만 다수 지자체의 경우, 특정 행사나 경연대회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 축적과 상시 활용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김해시는 전국 최초의 가야금 경연대회와 시립가야금연주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산이 도시 전반의 문화·관광·브랜드 전략으로 충분히 확장·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는 김해시가 타 지자체를 단순히 추격하거나 모방하기보다는, 기존에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도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함
- 종합하면, 정책·산업 환경 측면에서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제도적·시장적 여건의 제약보다는, 전략적 재구성과 연계 설계의 문제가 핵심 과제로 도출되며, 이는 향후 SWOT 분석과 핵심 전략 도출 단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임

#### 4) 전통악기·전통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도시 활성화 사례

- 전라북도 전주시는 판소리·국악 기반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의 대표적 국내 사례로 평가됨
  - 전주시는 판소리, 국악, 한옥마을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연계하여 국악 상설공연, 관광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전통과 대중 장르를 결합한 융합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 주요 성과로는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음악축제로 성장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들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통예술이 특정 행사나 축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향유되는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도시 문화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상설·일상형 공연 운영 체계는 전통예술을 보존의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도시 전략 자산으로 전환시켜, 관광·문화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됨



자료) 전주소리축제 홈페이지

(그림 2-3) 전주소리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 경상북도 안동시는 탈춤과 유교문화를 결합한 세계유산 기반 전통콘텐츠 관광의 대표 사례로 평가됨
  - 안동시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유교문화라는 지역 고유 자산을 중심으로 전통공연을 축제·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정착시켜, 안동만의 차별화된 문화 관광 정체성을 구축함
  - 세계유산과 연계한 축제 운영, 공연·체험·이레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전통 콘텐츠가 축제·관광·교육 영역으로 확장되는 통합적 운영 구조를 형성함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국내외 탈춤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공연의 국제적 인지도와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함
  - 그리고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상설공연 형태로 운영되며, 전통예술이 특정 시기·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연중 향유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 이는 전통콘텐츠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교육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로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됨



자료) 안동관광 홈페이지(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홈페이지(우)

(그림 2-4) 안동 전통콘텐츠 활용 사례

### 3 | SWOT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1) SWOT 종합 분석

- 앞서 살펴본 김해시 가야금 정책환경 분석(PEST), 정책·산업 환경 분석, 그리고 가야금 관련 주체·사업·인프라 현황 진단을 종합하면, 김해시 가야금 정책을 둘러싼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음

#### ▣ 강점(Strengths)

- 김해시는 1991년 전국 최초로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30년 이상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도시로서, 가야금 분야에서 축적된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1998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시립 가야금 전문 연주단을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가야금 전승과 공연 활동을 지속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음
- 아울러 가야문화의 중심지라는 도시 정체성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은 가야금을 문화·관광·도시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함

#### ▣ 약점(Weaknesses)

- 김해시 가야금 정책과 사업은 경연대회와 공연 중심의 전통 보존·계승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민 일상과의 접점 및 대중적 접근성이 제한적인 한계를 지님
- 가야금 축제는 장기간 운영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규모와 흥행 측면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연대회-축제-연주단 간의 유기적 연계 구조 또한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더불어 가야금 관련 공간·시설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시 활용 가능한 체험·교육·콘텐츠 거점이 부족하다는 점도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함

#### ▣ 기회(Opportunities)

-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전통문화·국악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창작·융합·산업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문화소비 방식 변화로 전통음악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가야금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전략 콘텐츠로 재조명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위협(Threats)**

- 학령인구 감소와 전공자 축소로 인한 국악 인재 기반 약화, 지역 간 문화정책 경쟁 심화, 대중문화 대비 전통문화의 상대적 관심 저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가야금 정책이 혁신 없이 기존 방식에 머물 경우,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함

<표 2-1> 김해시 가야금 정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운영에 따른 역사성과 상징성</li> <li>· 전국 최초 창단 시립 가야금 전문 연주단의 장기 운영 경험</li> <li>· 가야문화 중심지로서의 도시 정체성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연대회·공연 중심 구조로 인한 대중성·일상성 부족</li> <li>· 축제 흥행력 및 참가 규모 정체</li> <li>· 경연대회·축제·연주단 간 연계 구조 미흡</li> <li>· 상시 체험·교육·콘텐츠 거점 공간 부족</li> </ul>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광역 전통문화 정책의 창작·융합·산업화 전환</li> <li>·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통음악 콘텐츠 확장 가능성</li> <li>· 지역 고유 문화자원 기반 관광·도시브랜드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 및 국악 전공자 기반 약화</li> <li>· 지역 간 문화정책 및 콘텐츠 경쟁 심화</li> <li>· 대중문화 대비 전통문화 관심 저하</li> </ul>

## 2) SWOT 기반 전략적 시사점 도출

- 이와 같은 SWOT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전통 자산의 보존과 계승에 머무르는 단계를 넘어, 가야금을 도시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견인하는 핵심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야금이라는 역사적·상징적 자산과 축적된 연주·교육 역량이라는 기존의 강점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수요 확대와 환경 변화 등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사업의 단발성, 향유층 한계, 정책·조직 체계의 미정비라는 구조적 약점과, 타 지역 전통문화 경쟁 심화 및 시민 체감도 저하라는 잠재적 위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핵심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구조 확립이 필요함
  - 경연대회·공연 중심의 공급 구조를 넘어, 다양한 장르·매체·기술과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 기반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고, 가야금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적 매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영상·교육·체험·온라인 콘텐츠 등 다매체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확장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가야금 콘텐츠의 축적·재활용·확산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핵심 거점 집중형 공간 전략이 필요함
  - 가야금 축제, 국가유산, 주요 역사·문화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류형·경험형 콘텐츠 구성을 통해, 가야금을 단순 관람 대상이 아닌 체험 중심의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는 관광 및 공간 활용과의 전략적 결합이 필요함
  - 김해시가 보유한 가야 역사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가야금을 단일 예술 장르가 아닌 김해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 아이콘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도시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여 대내외 인지도와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역할 분담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경연대회 수상자, 청년 예술인, 전문 연주자, 시민·생활문화 참여층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가야금 향유층의 저변을 확대하고

- 창작·전승·향유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보해야 함
- 가야금 정책을 개별 행사·단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 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검토, 전담 기능 정비,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표 2-2> 김해시 가야금 정책 SWOT 분석

전략 유형	전략 방향	제5장 연계 전략
S-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야금 콘텐츠의 창의적 융합 및 산업적 확장 추진</li> <li>· 가야문화 서사와 가야금을 결합한 도시 브랜드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전략</li> <li>·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 전략</li> </ul>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과 정책 환경을 활용한 대중 접근형 콘텐츠 확대</li> <li>· 체험·교육·관광 연계 콘텐츠를 통한 축제·공연·구조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전략</li> <li>·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전략</li> </ul>
S-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 연주단과 경연대회 자산을 활용한 전문 인재 육성 및 활동 무대 확대</li> <li>· 김해만의 가야금 서사 기반 차별화 전략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구축 전략</li> </ul>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절된 사업 구조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li> <li>· 중장기 관점의 가야금 정책·사업 운영 체계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전략</li> </ul>

### III 김해시 가야금 현황 및 종합 진단

#### 1 | 김해시 가야금 관련 주체별 현황 및 역할 진단

##### 1) 김해시 가야금 관련 자치법규 현황과 제도적 기반

###### (1) 가야금 관련 자치법규의 구성과 주요 내용

-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사업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된 현행 자치법규는 총 3건으로 정리될 수 있음. 이들 조례는 가야금을 특정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첫째,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의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을 포함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동 조례는 가야금연주단을 포함한 각 예술단의 구성, 단원 선발, 정기·수시 공연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주 환경과 시민의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둘째,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야금 경연대회와 가야금 페스티벌을 주관·운영하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동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콘텐츠 확충 및 공모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가야금 관련 정책 및 전략 사업을 전문 조직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행정과 민간, 예술과 관광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셋째,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김해문화원의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선양, 지역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김해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인 가야금의 교육·보급·전승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 참여형 문화 활동과 생활문화 차원의 가야금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표 3-1> 가야금 관련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동향

구분	자치법규명	제·개정일	분야
자치법규 (3)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01.12. (2022.02.11.)	문화예술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01.14. (2024.05.09.)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0.12.3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2) 가야금 관련 자치법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 이와 같이 김해시는 가야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자치법규들은 모두 문화예술 전반 또는 기관 운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그 결과, 김해시 고유의 핵심 전통문화자산인 ‘가야금’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중장기적 진흥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전용 조례는 부재한 상황
- 이러한 구조는 가야금 관련 정책과 사업이 개별 기관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초래하며, 정책의 지속성·확장성·전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김해시 가야금 진흥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가야금을 김해시 대표 문화정책 자산으로 명시하고, 교육·전승·창작·산업·관광 연계까지 포괄하는 단계별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근거를 법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변천과 발전 과정

### (1) 김해시 가야금 정책·사업의 역사적 전개

-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1990년 김해문화원이 시민 대상 가야금 강좌를 개설하며 교육 기반을 마련한 것을 출발점으로 함
- 1991년 제1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개최되며 전국 단위의 전문 경연대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구축됨
- 1997년 제7회 대회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권위를 확보하였고, 1998년에는 전국 최초의 단일 악기 연주단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창단되어 전문 연주 기반이 제도적으로 확립됨
- 2011년 이후에는 가야금 페스티벌이 추가되며 경연 중심 구조에서 공연·전시·체험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축제로 확장되었고, 2018년부터는 경연대회와 페스티벌이 통합 운영 체계로 정착됨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심사와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2025년에는 ‘김해 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 역사성과 상징성을 한층 강화함

### (2) 단계별 정책 특징과 주요 성과

- 태동기(1990~1996년)는 가야금 교육 기반 조성 and 전국 경연대회 출범을 통해 정책의 출발점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됨
- 정착기(1997~2010년)에는 대통령상 격상과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창단을 통해 김해가 ‘가야금의 도시’로서 전국적 위상을 확립함
- 확장·통합기(2011~2019년)에는 페스티벌 도입과 통합 운영을 통해 가야금 정책이 단일 경연에서 종합 문화행사로 확장됨
- 성장기(2020~현재)에는 운영 방식의 유연화, 문화·관광 연계 강화, 지역 정체성 기반 브랜딩이 본격화되는 특징을 보임

<표 3-2> 김해시 가야금 정책(사업)의 단계별 특징 및 성과

구분	연도	경연대회	페스티벌	주요 특징
태동기 (1990~1996)	1990	김해문화원 가야금 교육(수업) 개설·개시	-	시민 교육 기반 마련
	1991	제1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최초 개최	-	전국 규모 경연대회 출범
	1992~1996	제2~6회 가야금 경연대회 연속 운영	-	경연대회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정착기 (1997~2010)	1997	제7회 대통령상 격상	-	전국 최고 권위 확립 (장관상→대통령상)
	1998	제8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창단	-	전문 연주 기반 구축
	1999~2010	제9~20회 경연대회 연간 120명 참가	-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완성
확장·통합기 (2011~2019)	2011	제21회 운영주최 변경 (→김해문화의전당)	제1회 가야금 페스티벌 시작	종합 문화 축제 확장 (경연대회+페스티벌)
	2012~2017	제22~27회 가야금 경연대회 지속 개최	제2~7회 페스티벌 확장	경연대회 및 축제 안정적 병행 운영
	2018	제28회 운영주최 확대(김해문화재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제8회 통합 축제 운영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통합 운영
	2019	제29회 통합 운영	제9회 통합 운영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통합 운영 체제 확립
성장기 (2020~2025)	2020	제30회 하이브리드 심사 도입	제10회 전면 취소	팬데믹 위기 안정적 대응
	2021	제31회 하이브리드 방식 정착	제11회 대면 방식 재개	전통성+혁신성 균형 운영
	2022~2023	제32~33회 지속 운영	야외공연 개시(12회), 개최시기 변경(13회, 봄→여름)	운영 방식 다각화
	2024	제34회 (김해문화관광재단 주관)	제14회 운영기관 변경	문화·관광 연계 효과 강화
	2025	제35회 '김해초선대 전국가야금경연대회'로 명칭 변경	제15회 지역성 강화	지역적·역사적 정체성 강화

### 3) 김해시 가야금 정책 동향의 종합 진단과 과제

-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지난 30여 년간 보존과 계승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전국 최고 권위의 경연대회와 유일한 시립 가야금연주단을 보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정책의 중심이 전통 연주와 전문 공연에 집중되면서, 일상적 문화향유 차원의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융합적 가야금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향후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기존의 정착·성장 기조를 넘어, 콘텐츠 확장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전환기·혁신기 전략으로의 재설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법제 정비, 정책 목표 재정의, 문화·관광·도시 브랜드와의 연계 전략을 포함한 단기·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 김해시 가야금 관련 사업 및 인프라 현황 진단

### 1) 가야금 경연대회 및 축제 운영 현황

#### (1) 김해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 현황

##### ▣ 개최운영 개요 및 위상

- 김해시는 1991년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출범시킨 이후, 1997년부터 대통령상을 시상하며 대회의 위상과 공신력을 강화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제35회 ‘김해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함
- 이는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가장 오랜 기간 지속 운영된 사례에 해당함
- 전국 주요 가야금 경연대회와 비교할 때, 김해시는 구례군(2003년 시작, 23회), 고령군(1992년 시작, 34회)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개최라는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음
- 2025년 김해시 대회의 개최 시기는 7월(여름)로, 구례군·고령군이 주로 봄철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구별되는 운영 특성을 보이며, 이는 연중 경연대회 일정 분산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있으나, 참가자 유입 측면에서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표 3-3> 주요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현황(2025년)

구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김해시	구례군	고령군	국립국악원
대회명	김해 초선대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구례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고령 전국우륵 가야금경연대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경연대회 개막 연도	1991년 (현재 35회)	2003년 (현재 23회)	1992년 (현재 34회)	1981년 (현재 45회)
개최 시기	7월 (여름)	5월 (봄)	5월 (봄)	4월 (봄)
참가자 수	186명	320명	222명	458명
주요 시상 규모	대통령상 1명 장관상 2명	대통령상 1명 장관상 2명	대통령상 1명 장관상 1명	대통령상 3명 국무총리상 3명 장관상 11명

자료) 김해시, 구례군, 고령군, 국립국악원 경연대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표 3-4> 주요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현황(2025년)

구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김해시	구례군	고령군	국립국악원	
수상 혜택	상금	대통령상 1,000만원	대통령상 2,000만원	대통령상 2,000만원	대통령상 500만원
	공연 및 실연	· (기악·병창, 작곡) 김해가야금 축제 공연·실연 기회 제공	· (사)가야금병창 보존회 정기공연 · 구례시 음악회 등 공연 기회 제공	없음	· 국립국악원 주치 공연(정기·기획·해외 등) 기회 제공 ·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 합동공연 등 제공
	기타	· 심사위원 위촉 기회 제공	· 대통령상 수상자 심 사위원 위촉 · 대상 수상자 개인 독주회 개최 시 후원	없음	· 현악·관악·성악 부분 최우수자 병역 혜택 · 국립·지방국악원 채 용 시 가점 · 국립국악원 주관 교 육 강사 위촉
특징	장점	경연대회 역사적 전통성	비교적 공연 기회 다양하며 개인 독주회 후원	참가자 및 시상 규모가 큼	공연·채용 등 시상 혜택 다양
	한계	참가자 및 시상 (상금·공연) 규모 작음	상대적인 대회 역사·전통성 부족	시상 혜택이 상금 중심임	상금 규모 적고, 병역 혜택 있음

자료) 김해시, 구례군, 고령군, 국립국악원 경연대회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 운영 특성 및 성과지표(참가·시상·혜택) 진단

### ○ 참가 규모 비교

- 2025년 기준 김해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 참가자는 186명으로, 구례군 320명, 고령군 222명, 국립국악원 458명에 비해 비교 대상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김해시가 전국에서 가장 오랜 경연대회 운영 이력과 김해국제공항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가 규모에 서는 상대적 열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시상 규모 및 구조

- 김해시 대회의 주요 시상은 대통령상 1명, 장관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규모이며, 국립국악원(대통령상 3명, 국무총리상 3명)과 비교할 때 시상 인원 및 폭이 제한적인 구조임을 보여줌
- 대통령상 상금은 1,000만 원으로, 구례군(2,000만 원), 고령군(2,000만 원), 국립국악원(500만 원)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함

<표 3-5> 가야금 경연대회 시상 현황(2018~2024)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시상 훈격별	대통령상	1	1	1	1	1	1	1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	2	2	2	2	2	2	14
	경상남도지사상	2	2	2	2	2	2	2	14
	김해시장상	7	7	7	7	7	7	7	49
	김해시의회의장상	4	4	3	4	4	4	4	27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상	10	10	10	10	10	10	6	66
	김해문화재단대표이사상	21	19	21	21	19	21	14	136
	소계	47	45	46	47	45	47	36	313
시상 분야별	공연(기악·병창)	44	42	43	44	42	44	33	292
	작곡	3	3	3	3	3	3	3	21
	소계	47	45	46	47	45	47	36	313
합계		47	45	46	47	45	47	36	313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 수상자 후속 혜택 및 연계성

- 김해시 대회는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차년도 가야금 축제 공연 기회 및 심사위원 위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례군의 대통령상 수상자 심사위원 위촉 및 국외·국내 공연 연계, 국립국악원의 공연·음반·해외 교류·국립국악원 주관 교육강사 위촉 등과 비교할 때, 수상 이후 성장 경로와 활동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임

- 또한 김해시 대회는 공연·작곡 부문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상과 운영의 중심은 기악·병창 등 전통 연주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창작·확장형 인재 발굴 기능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정책적 시사점

- 종합하면, 김해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 최초 개최, 최장 운영 이력, 대통령상 시상이라는 상징성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규모, 시상 구조, 수상자 후속 지원 측면에서는 타 경연대회 대비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됨
- 이에 김해초선대전국가야금경연대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전환이 요구됨
  - 경연 수상 → 가야금 축제 메인무대 출연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협연 또는 위촉 → 국내·외 순회공연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단계적 구조 구축 필요
  - 전통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작곡, 신작 위촉, 타 장르(무용·미디어·영상) 협업 부문을 독립된 시상 체계로 확대하고, 우수작의 실연·기록·유통을 제도화하는 창작·융합 부문 강화 필요
  - 단순 상금 증액보다 공연, 레코딩, 레퍼토리 제작, 국내외 교류, 교육·멘토링 참여 등 실질적 예술 경력 확장에 기여하는 혜택을 표준화하는 동 기회 중심 수상자 패키지 설계

## (2) 김해시 가야금 축제 현황

### ▣ 가야금 축제 개최 현황 및 위상

- 김해시 가야금 축제는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4회 개최되었으며, 가야금을 단일 주제로 운영한 축제 중 가장 오랜 연혁을 보유함
- 본 축제는 국악 일반이 아닌 ‘가야금’에 정책적·문화적 초점을 둔 전문 축제로, 국악 축제의 일부 프로그램 형태(서울시) 또는 복합 주제형(의령군)과 구별됨
- 2024년에는 9월에 4일간 운영되어(서울 2일, 의령 3일 대비 장기 운영) 체류형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운영 여건을 갖춘

- 다만 2024년 참가자는 1,868명으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의령군(약 5,500명)과의 격차는 축제 흡인력의 한계를 보여줌
- 예산(약 2억5천만 원) 규모, 주말 포함 여부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장기 운영 경험 대비 성과가 낮아 운영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표 3-6> 가야금 축제 개최 현황(2024년)

구분	김해시	서울시	의령군
축제명	김해 가야금축제	서울 국악축제	의령 신변문화축제
핵심 주제	가야금 축제 (가야금 핵심)	국악 축제 (가야금 일부 포함)	한지·가야금 축제 (가야금 일부 포함)
특징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경험하는 축제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뜻을 되살린 국악 축제	우륵과 가야금의 탄생지에서 개최하는 '한지'와 '가야금 축제
축제 개막 연도	2011년	2019년	2022년
개최 기간	4일 (2024.9.4.수 ~2024.9.7.토)	2일 (2024.9.17.화 ~2024.9.18.수)	3일 (2024.9.6.금 ~2024.9.8.일)
참가자 수	1,868명	18,623명	약 5,500명
개최장소	김해문화의전당	돈화문국악당 및 국악로 일대	부림면 일원
전담조직	김해문화관광재단	서울시 문화예술과	의령군 문화관광과
예산 (백만원)	국비	-	-
	지방비	250	207
	합계	250	207

자료) 김해시, 의령군, 서울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프로그램 및 운영 구조 진단

- 축제는 전반적으로 공연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 공연은 그간 명인 초청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2021년 이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등 일반 공연이 매년 포함되면서 대중성 확보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
- 그러나 경연대회 수상자 공연, 지역 아마추어 참여는 제한적이며, 경연-축제 연계 구조가 정례화되지 못함

- 장르 실험(협연, 퓨전, 플래시몹 등)은 시도되고 있으나, 축제의 중심은 여전히 전통 연주에 집중되어 전국 단위 확장성은 미흡한 편임
- 창작 또한 편곡·악기 구성 등 음악 내부 변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현대예술 및 기술과 결합한 확장형 콘텐츠는 부족함
- 향후에는 전통·창작을 기반으로, 타 장르 협업과 미디어·AI·AR·VR 등 융복합 요소를 반영한 ‘전통·창작기술’ 복합형 축제로 재구성이 요구됨

<표 3-7> 가야금 축제 프로그램 현황(2018~2024)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공연	대상별	명인 공연	1	1	1	1	1	-	5
		대회 수상자 공연	-	-	-	-	1	-	1
		지역 아마추어 공연	-	1	-	-	-	-	1
		일반공연 (가야금연주단 등)	-	-	1	5	1	1	8
	소계		1	2	2	6	3	1	15
	장르별	동·서악기 협연 <sup>1)</sup>	1		-	-	-	-	1
		아시아악기 협연 <sup>2)</sup>	1	1	-	-	-	-	2
		퓨전 공연 <sup>3)</sup>	-	1	1	-	1	3	6
		플래시몹 공연 <sup>4)</sup>	-	-	-	-	1	-	1
	소계		2	2	1	0	2	3	10
교육	클래스	전공자·연주자 대상	-	-	-	1	1	-	2
	체험	일반시민 대상	-	1	-	-	-	-	1
	소계		0	1	0	1	1	0	3
합계		3	5	3	7	6	4	28	

1) 동·서악기 협연: 가야금,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등의 협연

2) 아시아악기 협연: 가야금, 고쟁, 고토, 아트가 등의 협연

3) 퓨전 공연: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단소 등 전통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연

4) 플래시몹 공연: 가야금연주와 무용단이 함께한 공연을 SNS라이브 방송으로 송출

주)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본래 예정된 가야금 축제가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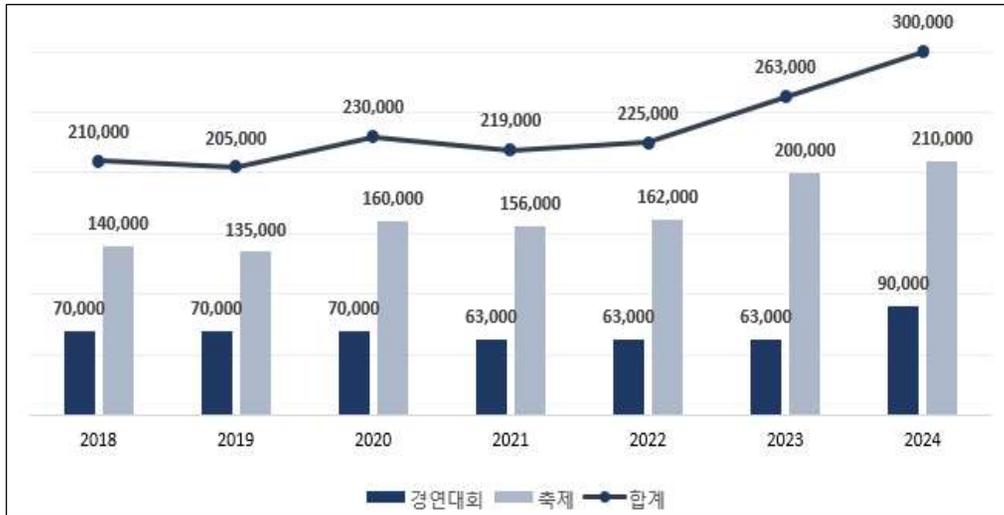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한계

-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볼 때, 김해시 가야금 축제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야금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는 주로 전공자·연주자 대상의 전문 클래스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수요 변화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축제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 편중은 한계로 작용함
-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 시민·아동·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입문형 교육을 축제 핵심 프로그램으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은 수요조사(대상, 수준, 접근성)를 기반으로 단계적·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됨
-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가야금 향유층 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예산 구조 및 정책적 시사점

- 2018년 이후 경연대회·축제 총예산은 증가 추세이며, 경연대회는 2024년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함
- 반면 축제는 2020년 이후 도비·시비 구조로 전환되었고, 도비는 증액, 시비는 동결되는 양상이 나타남
- 이는 경연대회 중심의 재정 우선순위가 강화되는 반면, 축제는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재정 기반이 약함을 시사함
- 경연대회와 축제가 통합 사업으로 집행되는 만큼, 축제의 대중성·홍행을 목표로 한다면 콘텐츠 확장과 운영 고도화에 연동한 예산 재편·확대가 필요함
- 참고로 고령군은 2024년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에 124,700천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는 가야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전략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 가야금 경연대회 및 축제 예산 추이 및 현황(2018~2024)

<표 3-8> 가야금 경연대회 및 축제 예산 추이 및 현황(2018~2024)

(단위: 천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경연대회	국비	-	-	-	-	-	-	0	
	도비	-	-	-	-	-	-	0	
	시비	70,000	70,000	70,000	63,000	63,000	63,000	90,000	489,000
	소계 (증감)	70,000	70,000 (-)	70,000 (-)	63,000 (▼10.0)	63,000 (-)	63,000 (-)	90,000 (▲42.9)	489,000
축제	국비	60,000	55,000	-	-	-	-	115,000	
	도비	-	-	80,000	76,000	92,000	120,000	130,000	498,000
	시비	80,000	80,000	80,000	80,000	70,000	80,000	80,000	550,000
	소계 (증감)	140,000	135,000 (▼3.6)	160,000 (▲18.5)	156,000 (▼2.5)	162,000 (▲3.8)	200,000 (▲23.5)	210,000 (▲5.0)	1,163,000
합계	210,000	205,000 (▼2.4)	230,000 (▲12.2)	219,000 (▼4.8)	225,000 (▲2.7)	263,000 (▲16.9)	300,000 (▲14.1)	1,652,000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현황

### ▣ 설립 배경 및 위상

- 김해시는 1998년 가야 역사문화 자원인 가야금을 단일 악기로 연주하는 전국 최초의 시립 연주단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단함. 이는 가야금의 계승·보급과 문화예술 창달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함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현재까지도 전국 유일의 시립 가야금 연주단으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음
-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은 이러한 김해 사례를 참고하여 2015년 창단되었으며, 가야금 전통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3-9> 지방자치단체 가야금단 현황

구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주체		김해시	고령군	
창단일		1998.04.16.	2015.10.01.	
설치근거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능		· 시민 정서함양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방문화예술 창달	· 군민 정서함양 · 가야금 저변 확대	
예산		784,510천 원	384,860천 원	
인원	총원	29명	16명	
	음악감독	1명	1명	
	단무장	1명	-	
	단원	가야금	24명	13명
		타악	2명	2명
작편곡		1명	-	
임기	단원	2년	2년	
근무 규정		주 3회 출근 (회당 3시간 이상 연습)	주 2회 출근 (회당 4시간 이상 연습)	
공연	총횟수	28건 (정기공연 2회 필수)	14건 (정기공연 1회 필수)	
	관내	24건(85.7%)	11건(78.6%)	
	관외	4건(14.3%)	3건(21.4%)	

자료) 김해시, 고령군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인원과 예산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공연은 2024년 기준으로 함

### □ 운영 규모 및 조직 특성

- 2024년 기준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운영 예산은 784,510천 원으로,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384,860천 원) 대비 약 2배 규모임. 이는 김해시가 가야금 연주단에 부여하는 정책적 기대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줌
- 인원 구성은 총 29명(음악감독 1명, 단무장 1명, 단원 27명)으로, 이 중 2명이 공식 상태임. 고령군은 정원 20명 이내로 운영되나, 현재 4명이 공식임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고령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연혁이 오래되었으며, 단무장(부감독)과 작·편곡 전담 단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 및 레퍼토리 확장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 운영 방식 및 근무 체계

- 연주단의 공식 조직 규정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음악감독-단무장-수석급 단원-팀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연 규모와 성격에 따라 4인·8인·12인 편성의 소그룹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며, 경력과 공연 순서를 고려한 순환 방식으로 운영함
- 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중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이 가능함. 이는 고령군과 동일한 운영 기준임
- 근무는 주 3회, 회당 3시간 이상 연습을 원칙으로 하여 주당 최소 9시간 이상을 근무함(고령군: 주 2회, 주당 8시간 이상)

### □ 공연 실적 및 활동 범위

- 2024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정기공연 2회를 포함해 총 28회의 공연을 수행함. 이 중 관내 공연 비중이 약 90%로, 관외 공연은 4회에 그침
- 같은 해 고령군은 총 11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관외 공연은 3회로 집계됨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근무 시간 대비 공연 횟수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활동 범위가 관내 중심에 머물러 관외·대외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최근 5년간 공연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2021년 대비 55.6% 증가한 성과를 기록함. 이는 연주단의 내부 역량과 운영 효율성이 일정 수준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3-10>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연도별 공연 현황(2020~2024)

(단위: 건 %)

구분	총 공연 수	관내 공연 수	관외 공연 수	장소 (주요 내용)
2020년	6	6 (100.0)	0 (0.0)	-
2021년	16	15 (93.7)	1 (6.3)	· 서울 세종문화회관 (자치단체 문화교류 공연)
2022년	18	15 (83.3)	3 (16.7)	· 대구 엑스코(유네스코 국제포럼 공연) · 의령 우륵문화마당(신변문화축제 공연) · 부산 김해공항(김해시 관광홍보 공연)
2023년	30	26 (86.7)	4 (13.3)	· 양산 문화예술회관 (낙동강협의회 예술단 교류 공연) · 창원 성산아트홀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특별공연) · 부산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연) · 의령 우륵문화마당(의령 신변 문화 축제)
2024년	28	24 (85.7)	4 (14.3)	· 부산 국립부산국악원(외부 초청 공연) · 창원 컨벤션센터(국제학술대회 공연) · 통영 제승당(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 합천 초계대공원(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자료) 김해시관광포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공연연보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종합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전국 유일의 시립 가야금 연주단으로서 상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예산·인력·조직 측면에서도 비교 지자체 대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공연 활동의 대부분이 관내에 집중되어 있어, 김해시가 지향하는 가야금 전승 도시·브랜드 도시로서의 대외 인지도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연주단을 단순한 시립예술단의 한 조직이 아니라, 김해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홍보·전승 주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관외·국외 공연 확대, 국제 교류, 관광·축제 연계 공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가야금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김해시 가야금 진흥 조례(가칭)」 제정 등을 통해 연주단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전문적·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의 법제적·정책적 개선이 요구됨

### 3) 김해 가야금 관련 국가 유산 및 시설 현황

#### ▣ 가야금 관련 국가유산 현황

- 김해시에 현존하는 가야금 관련 대표적 국가유산으로는 안동에 위치한 초선대가 있음. 초선대는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된 김해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애 유적으로, 김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임
- 초선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가락국 제2대 거등왕(김수로왕의 아들, 재위 199-253년)이 칠점산의 참시선인을 초청하여 가야금과 바둑을 즐겼다는 일화가 전하는 장소로, ‘신선(또는 현자)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지닌 지명으로 인식되어 왔음. 이로 인해 초선대는 가야 시기 김해 지역의 음악·풍류 문화와 연관된 상징적 공간으로 해석되어 왔음
- 이에 초선대는 가야 시기 이후 김해 지역에서 음악과 풍류 문화가 향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 가야금 관련 시설 현황

- 김해시의 가야금 관련 시설로는 진영 지역에 조성된 서어지공원의 가야금 조형물이 대표적임. 해당 조형물은 진영의 옛 지명인 ‘서어지(돌널)’에서 착안하여 조성된 공공 예술시설로, 지역의 역사성과 가야금 문화를 결합한 상징물임
- 서어지공원 가야금 조형물은 가야금이 가야 시대에 사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12현 가야금의 구조와 형태를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임
- 다만 현재의 시설은 조형물 중심의 시각적 상징에 머물러 있어, 가야금 문화의 역사적 맥락이나 전승 의미를 체험·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진단 및 활용 방향

- 김해시가 가야 역사문화 자원인 가야금을 도시 대표 이미지이자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형물 설치 수준을 넘어 초선대와 같은 유산을 가야금 문화 전승의 상징 공간으로 재해석·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조선대는 ‘가야금 발상지’라는 해석을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스토리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야금 문화 전승지: 금관가야 시기 가야금 문화 향유와 가야 연맹체 내 음악·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
  - 문화적 상징 공간: 가야 문화의 정신적 유산 계승, 왕과 현자의 만남이라는 이상적 서사를 형상화한 장소
  - 지역사적 가치 공간: 김해 지역 가야금 문화 활동의 정신적 토대이자 전통 계승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 공간
- 아울러 서어지공원 가야금 조형물을 거점으로, 가야금 역사 해설, 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공연, 사운드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보는 조형물에서 경험하는 문화자산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김해시 대표 가야금 시그널을 개발하여 경전철, 횡단보도, 공원 등 도시 일상 공간에 상시 활용할 경우, 김해시를 가야금 문화의 전승과 확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김해시 온라인 관광안내소

(그림 3-2) 김해시 가야금 관련 문화유산 및 조형물

### 3 | 현황 진단을 통한 문제 요인 및 잠재 기회 요인 도출

#### 1) 구조적 문제 요인

##### ▣ 지역 문화행정 및 거버넌스의 한계

- 김해시는 시립예술단, 문화관광재단, 문화원 등 다수 주체가 가야금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정리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 특히 축제 기획·운영, 연주단 공연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 구조가 상시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단위별로 임시 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연주단 운영에 있어 행정적 관리 논리와 예술적 자율성 간의 긴장 관계가 잠재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창작 활성화와 대외 활동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향후 가야금 정책과 사업이 확대·다각화될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야금 정책 전반을 조율·연계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 재정 기반 및 지원 구조의 취약성

- 김해시 가야금 관련 사업은 연주단 운영, 축제, 교육 프로그램 등 대부분이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3년 「국악산업 통계조사」에서도 국악 분야 영세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김해시 역시 단원 처우 개선, 창작·제작비 확충, 신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국비 공모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메세나, 관광 연계 수익, 콘텐츠 상품화 등 보다 다층적인 재원 확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전문 인력 및 계승 기반의 약화

- 김해시 지역 내 가야금 전공 인력 풀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립가야금연주단 역시 단원 충원을 전국 단위 공개채용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지역 차원의 인재 양성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국악계 전반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는 김해시 역시 예외가 아니며, 어린이가야금단 이후 중·고교 단계에서 전문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사다리가 취약한 상황임

#### ▣ 대중 참여 저조 및 콘텐츠 산업화 한계

- 김해시 가야금 공연은 전통음악 애호층과 관련 종사자 중심의 관객 구조를 보이며, 청년층과 일반 시민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는 콘텐츠 기획이 전통 연주 중심에 머물러 있고, 현대적 감각의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마케팅 전략이 충분히 결합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가야금 관련 산업(악기 제작, 공연기획, 콘텐츠 제작·유통 등)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공연 외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러한 구조는 가야금 문화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2) 잠재 기회 요인

#### ▣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브랜드화 가능성

-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중심지로서 가야문화와 가야금 서사를 결합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금 콘텐츠를 지역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함
- 세계유산 관광과 연계한 상설공연·체험 프로그램, 분청도자기·오광대 등 지역 문화자산과의 융합 콘텐츠는 김해만의 차별화된 가야금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님

#### ▣ 콘텐츠 확장성과 융합 가능성

- 가야금은 전통 연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 및 매체와 결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은 예술 자산임
- 시립가야금연주단의 협업 공연 사례와 K-콘텐츠에서의 가야금 활용은 가야금이 대중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줌

- 음악·영상·공연예술이 결합된 창작 콘텐츠, 국제 교류형 페스티벌로의 발전은 김해 가야금 정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핵심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교육 자원 연계 및 인재 육성 기회

- 인근 부산 지역에 집적된 국악 교육·연구 인프라는 김해시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재 양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자원임
- 학교 예술교육, 방과후 가야금 프로그램, 시민 동호회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형 가야금 교육 생태계 구축이 가능함
-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가야금 향유층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외부 협력 및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 국내 전통음악 특화 도시 및 해외 현악기 문화권과의 교류는 김해 가야금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콘텐츠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콘텐츠 개발, 국제 행사 유치, 추가 재원 확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IV 가야금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분석

### 1 | 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 1) 전문가 자문 개요

##### (1) 전문가 자문 목적

- 전문가(정책 연구자, 교수, 가야금 연주자)의 의견을 취합·반영하여 향후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사업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2) 전문가 자문 주요내용

- 전통문화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가야금 현황 및 이슈
- 중앙 및 지자체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의 동향 및 현황
- 김해시 가야금 정연대화·축제 특징과 한계 및 개선책
- 환경변화에 따른 김해시 가야금 정책 전략 및 방향
- 김해시 가야금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

##### (3) 전문가 자문 방법

- 대면 인터뷰 실시(일대일, 다대일)

##### (4) 전문가 자문 일자 및 대상

- 기간: 2025.09.10.(수) ~ 09.12.(금)
- 대상: 총 4명
  - 가야금 국악정책 교육분야 교수 1명
  -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정책연구원 2명
  - 가야금연주자 1명

## 2) 전문가 자문 결과

### (1) 정책 기조의 전환 필요성

- 전문가들은 김해시 가야금 정책이 전통의 보존·계승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활용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 특히 전통 계승·보존 기능은 국가 및 전문기관의 역할로 구분하고, 김해시는 지역 차원에서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 활동과 콘텐츠 실험, 확산에 집중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전통을 토대로 한 창작이 축적되고 반복되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2) 창작 중심 대중화 전략 필요성

- 가야금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전통 연주 형식의 직접적 전달보다, 창작곡·편곡·융합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창작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가야금에 대한 관심과 친숙도를 먼저 형성한 뒤, 이를 계기로 전통 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장되는 구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연뿐 아니라 영상,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3)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관내 중심의 전통 연주 역할에 한정되기보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가야금 전문 예술단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단체 중심의 고정된 편성에서 벗어나, 소규모 편성이나 다양한 연주 형태를 통해 단원 개개인의 역량과 창작성이 드러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주단은 전통 연주의 계승과 함께, 창작 활동의 주체로서 가야금 콘텐츠 확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경연대회·축제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

- 가야금 경연대회는 단순한 시상 중심의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유망 인재 발굴 이후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야금 관련 축제는 전통 부문을 유지하되, 창작곡과 다양한 음악 장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대중성과 확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반복적인 형식의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매년 주제 설정과 해석을 통해 축제의 방향성과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표 4-1> 전문가 자문 결과 요약

구분	핵심 진단	주요 제언
정책 기초의 전환	· 김해시 가야금 정책이 전통 보존·계승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전문기관과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전통 보존·계승 기능은 국가·전문기관 역할로 구분하고, 김해시는 전통 기반 창작·활용 중심의 지역 정책으로 역할 재정립
창작 중심 대중화 전략	· 전통 연주 중심 접근은 대중적 확산과 일상적 향유에 한계가 있음	· 창작곡·편곡·융합 콘텐츠를 우선 확산하여 친숙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 영역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 마련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 역할	· 연주단의 기능이 관내 중심 전통 연주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원 개별 역량과 창의성 발현 구조가 미흡함	· 김해시를 대표하는 가야금 전문 예술단으로서 위상 재정립 및 소규모 편성 등 다양한 연주 형태를 통한 창작 주체 역할 강화
경연대회·축제 운영	· 경연대회는 시상 중심, 축제는 반복적 구성으로 콘텐츠 확장성과 차별성이 부족함	· 경연대회는 인재 발굴 이후를 고려한 구조로 개선하고, 축제는 전통을 유지하되 창작곡과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기획 및 연간 주제 설정 필요

## 2 | 관계자 인터뷰 분석

### 1) 관계자 인터뷰 개요

#### (1) 인터뷰 추진 목적

- 김해시 대표 예술인 가야금의 전략적 콘텐츠화 및 확장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요 기관(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김해문화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였음
- 기관별 현행 사업 추진 구조와 운영상의 한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김해시 차원의 가야금 정책 및 사업 전략체계 수립에 활용할 실질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2) 관계자 인터뷰 주요 내용

- 기관별 가야금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 기관별 가야금 사업 현황 및 운영 실태
- 향후 가야금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기관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향
- 김해시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의 발전방향과 개선 필요사항

#### (3) 관계자 인터뷰 방법

- 대면 인터뷰 실시

#### (4) 관계자 인터뷰 일자 및 대상

- 기간: 2025.10.16.(목) ~ 11.06.(목)
- 대상: 총 23명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21명
  - 김해문화관광재단 1명
  - 김해문화원 1명

## 2) 관계자 인터뷰 주요 내용

### (1) 정책 기조 및 콘텐츠 전략 방향

- 관계자들은 가야금의 전통 계승·보존 기능은 국립국악원 등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김해시는 전통에 기반한 창작과 대중화 중심의 가야금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함
- 특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관내 정기공연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기보다, 국내·국제 무대에서 김해를 대표하는 가야금 연주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야금 경연대회 및 축제는 단독·분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가야문화축제와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가야금을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대중적 파급력과 도시 브랜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됨
- 축제와 경연대회의 방향성은 ‘대중화-현대화-세계화’의 단계적 흐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조직 운영 및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현재 별도의 사무국이나 행정 전담 인력이 부재하여 단무장이 행정·근태·예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가야금단이 관내를 넘어 국내·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연 및 대외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 인력 또는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 또한 가야금 연주 전문성과는 별도로, 공연의 기획·연출·무대 구성·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국악계 특유의 수직적 조직 문화로 인해 단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경력·연령을 넘어 단원의 의견이 실제로 수렴·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소통 환경과 유연한 그룹 활동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3) 연주자 처우 및 인재 관리 체계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소속에 대한 자긍심은 존재하나,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 체계가 부재하여 단원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가 낮은 상태라는 진단이 제시됨
- 현재 비상임 구조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낮고, 일정 근로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단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평가 결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 정기공연 독주 기회, 개인 독주회 지원 등 실질적인 상벌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 과거 운영되었던 명인 초청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중단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으며, 연주자의 지속적인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습 공간 부족, 단일 연습실 공동 사용, 악기 및 장비 운반 인력 부재 등 열악한 부대시설 여건이 연주자의 역량 발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4) 인재 양성 및 교육 환경 조성

- 가야금 저변 확대와 인재 발굴을 위해 공교육과 연계한 가야금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김해시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가야금 특성화 학교 또는 거점 학교를 지정하고, 가야금연주단 단원이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이 연주단을 방문해 체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과거 가야금 입문 및 전공자 양성의 통로 역할을 했던 ‘김해가야금어린이 연주단’ 운영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5) 학술 기반 강화 및 협력 거버넌스

- 가야금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 포럼·세미나 등 연구 기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김해문화원은 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아카이브 역량을 바탕으로 가야금 관련 학술 행사, 기록 발굴, 자료 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김해시,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김해문화원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 의지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됨
-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중장기적 활용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표 4-2> 관계자 인터뷰 결과 요약

구분	핵심 진단	주요 제언
정책 기초 및 콘텐츠 전략	· 김해시 가야금 정책이 전통 보존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대중성과 파급력이 제한적임	· 전통 계승·보존은 국가기관 역할로 구분하고, 김해시는 전통 기반 창작을 통한 대중화·현대화 중심 전략으로 정책 기초 재설정
축제·경연대회 구조	· 가야금 경연대회와 축제가 분산·반복 운영되어 임팩트와 대표성이 약함	· 가야문화축제와 연계·통합하여 가야금을 핵심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고, '대중화·현대화·세계화' 단계로 추진
조직 운영 및 인력	· 가야금단과 재단 모두 행정·기획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제한됨	· 가야금단 사무국 또는 행정 전담 인력 설치, 재단 내 국고·기획사업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연주자 처우 및 창작 환경	· 고용 안정성 부족, 성과 보상 체계 미흡, 연습 공간·장비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 성과 기반 인센티브와 독주 기회 확대, 명인 초청 연수 재개, 추가 연습 공간 및 악기·장비 운반 지원
인재 양성 및 협력 기반	· 가야금 인재 양성 체계와 학술·기관 간 협력 구조가 약화됨	· 공교육 연계 가야금 교육 및 어린이연주단 재검토, 학술 포럼·세미나 추진, 시·재단·연주단·문화원 협의체 구축 및 아카이브 강화

### 3 | 종합 시사점

-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기존의 전통 보존·계승 중심 단계에서 전통 기반 창작·활용 중심 단계로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됨
  - 국립국악원 등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전통 보존 기능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로서 김해시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정책 영역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의미함
- 특히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가야금을 단일 예술 장르가 아닌 도시를 대표하는 전략 문화콘텐츠로 기획·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가야금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실험·제작, 브랜드화, 대중 확산, 대외 교류까지를 포괄하는 지역 차원의 정책 플랫폼 기능 강화가 핵심 방향으로 도출됨
- 가야금의 대중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통 형식의 직접적 전달보다 창작·개량형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됨
  - 대중 친화적 창작 콘텐츠를 통해 가야금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을 우선 형성하고, 이후 전통 부문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이행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확인됨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 주체로서, 관내 중심의 전통 연주 역할을 넘어 국내외 교류와 상징적 무대에 참여하는 도시 대표 예술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요구됨
  - 단체 중심의 수직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단원 개개인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연한 편성 구조와 상향식 운영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가야금 경연대회와 축제는 단순한 행사 운영 차원을 넘어, 인재 발굴-성장-확산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전통 부문은 유지하되, 창작곡과 융복합 장르를 확대하고 대중 장르 및 교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전통성·창작성·대중성의 균형을 갖춘 구조로 고도화해야 함

-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가야금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문 기획·행정 인력 확충, 연주자 처우 개선과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마련, 연습 공간 및 부대시설 확충 등이 선결 과제로 도출됨
  - 단기 성과 창출을 넘어, 가야금 정책과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됨
- 마지막으로 가야금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술 기반 강화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가야금 관련 연구·기록의 체계적 축적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김해시-김해문화관광재단-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김해문화원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정립은 향후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

<표 4-3> 종합 시사점 요약

정책 카테고리	핵심 요지	주요 내용 정리	정책적 함의
정책 패러다임 및 역할 재정립	· 전통 보존에서 창작·활용 중심으로 전환	· 중앙기관의 보존 기능과 차별화하여, 김해시는 전통 기반 창작·확산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	· 지방정부형 전통예술 정책의 정체성 확립
전략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야금 위상 강화	· 가야금을 도시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	· 가야금 단일 장르를 넘어 김해를 상징하는 전략 문화콘텐츠로 기획·브랜딩·확산	· 도시 브랜드 및 문화 경쟁력 제고
콘텐츠 대중화 및 확산 전략	· 창작 콘텐츠 중심의 단계적 접근	· 창작·개량형 콘텐츠를 매개로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으로 확장되는 이행 구조 설계	· 신규 관객층 유입과 지속적 수요 창출
핵심 실행 주체 및 운영 방식 혁신	· 시립가야금연주단의 기능 확대	· 관내 연주 중심에서 국내외 교류·상징 무대 중심으로 역할 전환, 유연한 편성·상향식 운영 도입	· 창작 역량 강화와 실행력 제고
인재·사업 플랫폼 구조 고도화	· 경연·축제의 기능 재설계	· 경연대회와 축제를 인재 발굴-성장-확산을 연계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전환	· 가야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속가능한 정책·조직 기반 구축	· 인력·시설·연구·거버넌스 강화	· 전문 기획·행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정립	· 정책 지속성·정당성·안정성 확보

## V 가야금 콘텐츠화 전략 및 확장 방안

### 1 | 기본 방향 및 비전

#### ▣ 비전 체계

- 김해시의 가야금 콘텐츠화 및 확장 방안의 정책 비전은 ‘김해형 가야금 문화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가야금이 단순히 보존·계승의 대상에 머무르는 전통문화가 아니라, 김해시가 보유한 가야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동시에 설명하고 상징하는 핵심 문화 코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함
- 아울러 기존의 단기 행사·공연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가야금을 도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6대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음
  - 3대 전략 방향은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구조 확립, 핵심 거점 집중형 공간 전략, 역할 분담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설정함
  - 이는 가야금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 기반 마련, 공간·관광과의 전략적 결합, 정책 추진 주체 간 역할 정립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포괄하는 상위 전략 방향임
  - 6대 전략 과제는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화,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구축, 조직·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으로 구성함
  - 이는 3대 전략 방향을 실행 가능한 정책 단위로 구체화한 것으로, 콘텐츠 제작, 공간 활용, 인재·시민 참여, 조직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략 체계라 할 수 있음

비전	<b>김해형 가야금 문화도시 구현</b> - 가야금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말한다 -			
3대 전략 방향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구조 확립	핵심 거점 집중형 공간 전략	역할 분담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6대 전략 과제	1.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2.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3.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4. 가야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화	5. 미래인재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6. 조직·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기대효과	가야금 콘텐츠의 지속 생산 촉진	체류형 문화관광 활성화	'가야금=김해' 도시 브랜드 고착	시민 참여 기반 문화 생태계 정착

(그림 5-1) 가야금 콘텐츠화 및 확장 방안 비전 체계도

- 이후 전략 내용은 비전 체계도에서 제시한 6대 전략과제를 기준으로 순차 제시하되,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는 전체 전략의 출발점(기본 전략)에 해당하므로 이를 우선 제시하고, 디지털 확장, 관광·공간 활용, 도시 브랜드화, 인재·시민 참여, 조직·거버넌스 혁신 전략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함

## 2 | 전략과제 1: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전략

### 1) 추진 필요성

- 본 전략은 김해형 가야금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 전략으로서, 이후 디지털 콘텐츠 확장, 관광 연계, 도시 브랜드화,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전략이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 수용성·향유 저변을 형성하는 핵심 전제에 해당함
- 가야금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자산임에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체험할 기회는 제한적이며, 전통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친숙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는 가야금 관련 정책·사업이 경연대회, 축제, 전문 연주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시기·특정 계층에 편중된 구조를 형성해 온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야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통 형식의 직접 전달보다 전통 기반 창작·융합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단계적 확산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특히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복지관 등 생활권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전통예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또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라는 전문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야금 공연이 일상적으로 노출·향유될 수 있는 상설·순환형 운영체계가 부족하여 전통예술의 생활문화화 및 도시 브랜드 형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가야금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 일상과 관광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통해 이후 전략과제들이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 방안(안)

- 생활문화 중심 가야금 친숙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학교 등을 거점으로 가야금의 역사·구조·기초 연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 대상 기초·입문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청년, 노년층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참여 저변 확대
- 생활문화 동호회 및 시민 참여 기반 확산
  - 지역 내 가야금 동아리·동호회 결성을 지원하고, 정기 연습 공간 제공과 지역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적 참여 구조 마련
  - 학교 예술교육(방과후 포함),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상시 운영 체계 구축
- 가야금 공연의 일상화 및 접근성 강화
  - 전통시장, 공원,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소규모 가야금 공연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의 일상적 문화 점점 확대
  - 가야테마파크,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봉황동 등 주요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한 상설 또는 순환형 공연 운영 체계 마련
- 창의적 융합형 가야금 공연 콘텐츠 개발 강화
  - 가야금을 중심으로 재즈, 클래식, 대중음악, 힙합, 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한 융합형 공연 기획
  - 미디어아트, 조명, 영상 등 시각 요소를 결합한 복합형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향후 김해 대표 공연 브랜드로 육성
- 관광 연계형 가야금 콘텐츠 확산
  -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 공연, 부산-김해 광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전통 음악 체험형 공연을 통해 외래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 가야금 공연을 관광 동선과 결합하여 체류형·체험형 관광콘텐츠로 확장

### 3 | 전략과제 2: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장 전략

#### 1) 추진 필요성

- 앞선 창의적 융합 및 대중성 확대 전략을 통해 형성된 가야금 향유 기반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지속적 노출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확장 전략이 필요함
- 최근 콘텐츠산업은 지적재산권(IP) 기반 확장, 실감기술 도입, 팬덤·커뮤니티 주도 소비 구조가 강화되며 장르와 매체 간 경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에서는 스펀오프 및 세계관 확장을 핵심 트렌드로 제시하며, 하나의 문화자산을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 확장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 트렌드 2028」 역시 슈퍼 IP 시대의 도래, 글로벌 팬덤 기반 확장, 실감형 경험 콘텐츠 성장을 주요 동인으로 제시함
- 이러한 환경 변화는 지역 축제와 관광콘텐츠 역시 단일 행사·관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결합형·연속 확장형 콘텐츠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함
- 김해의 가야문화와 가야금은 역사·서사·상징성을 모두 갖춘 핵심 문화자산이나, 현재는 공연·축제 중심 소비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산업화와 관광 접점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가야금 콘텐츠를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이 아닌 확장 가능한 문화 IP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체험·참여·확산 구조를 통해 축제·관광·도시 공간 전반으로 확장되는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숏폼 영상, 캐릭터·모션그래픽, AR·AI 기반 실감 체험 등 MZ세대 친화적 디지털 콘텐츠는 가야금의 전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향유층을 유입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2) 추진 방안(안)

- 팬덤·커뮤니티 기반 참여형 축제 모델 구축
  - 가야금 연주자, 지역 창작자, 청년 아티스트와 연계한 팬 커뮤니티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 가야금 챗린지, 커버 영상 공모,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기반 콘텐츠 생산 유도
- 축제 기간 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스터 클래스, 공개 워크숍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축제·관광 연계형 IP 기반 콘텐츠 확장
  - 가야금과 가야사의 서사, 가야 왕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중심 스피노프 콘텐츠 기획
  - 가야금 연주 서사를 웹툰·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축제 기간 사전 공개 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
  - ‘가야금 시그널 음악’, ‘가야금 사운드 로고’ 등 도시형 오디오 브랜드를 개발하여 축제, 전시, 관광지 안내 음성에 통합 적용
-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기반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
  - 시민·청년·지역 창작자가 참여하는 가야금 기반 UGC 영상 공모전 및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청년을 위한 숏폼 크리에이터 랩 운영 및 관광지 현장에서 즉시 촬영·편집 가능한 모바일 스튜디오 도입 검토
- AI·데이터 기반 가야금 디지털 콘텐츠 제작
  - AI 작곡·반주 생성 기술을 활용한 가야금 음원 콘텐츠 제작
  - AI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가야금 기반 시각·영상 콘텐츠 생성 및 확산
  - 저작권·윤리 기준을 반영한 데이터 활용 원칙과 결과물 검수 체계를 병행함
- 실감형·모바일 중심 디지털 체험 콘텐츠 고도화
  -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야금을 스캔하면 가상 악기 연주가 가능한 AR 기반 가야금 연주 체험 서비스 개발
  -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위치 기반 디지털 체험 콘텐츠 운영
  -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한 온·오프라인 복합형 관광상품 운영

## 4 | 전략과제 3: 관광 연계 및 특화 공간 활용 전략

### 1) 추진 필요성

- 가야금 콘텐츠의 일상화와 디지털 기반 인지도 제고 이후에는, 이를 도시 공간과 관광 동선 속에 결합하여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전략적 확장이 요구됨
- 최근 관광정책은 단순한 관람 중심의 관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류형·참여형·경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스토리 기반 문화경험, 야간관광 수요 증가, 실감기술과 결합된 콘텐츠 선호, 로컬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 방식이 확산되면서, ‘방문’ 중심 관광에서 ‘머무르고 참여하는’ 관광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김해시는 가야문화 유적, 역사공간, 축제, 하천과 도심 공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원 간 연계성이 낮아 관광 동선이 분절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확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역사유적 관람 이후 추가적인 체험·야간·소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구조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야금은 공연, 교육, 체험,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확장이 가능한 대표 문화 IP로서, 김해의 주요 관광거점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가야금은 가야문화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상징 자산으로, 관광 루트, 공간, 시간대(주·야간)를 연결하는 통합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이에 따라 가야금 콘텐츠를 관광 루트 및 특화 공간과 연계하여, 관광 체류시간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간 기반 관광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2) 추진 방안(안)

### ○ 가야문화권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경험 강화

-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지, 수로왕릉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연결하는 ‘가야금 스토리 투어’ 운영함. 해당 투어는 주말·축제 기간 중심의 상설 또는 순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가야문화 유적지 기반의 통합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국어 오디오가이드 및 추천 코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함
- 유적지 및 주요 관광지에서 가야금 해설, 연주, 체험이 결합된 스토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 관람을 감상·체험형 관광으로 확장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좌), 수원문화재단(우)

(그림 5-2) 야외 공연 프로그램

### ○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 확대

- 가야금 연주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야간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례적인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가야금 줄 형상을 활용한 야간 포토존 조성, 전통·퓨전·EDM 등 장르별 야간 시리즈 공연을 도입하여 야간 체류 수요를 창출함
- 가야문화축제와 연계한 가야금 경연·쇼케이스를 확대하고, 사계절 운영 가능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그림 5-3) 야간 공연 프로그램

- 관광서비스·상권·특화공간 연계 도시 브랜드 경험 강화
  - 가야금 체험, 관광지 투어, 야간 공연을 결합한 맞춤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가족, 청년, 외국인 관광객 등 대상별 관광 수요에 대응함
  - 가야금 테마 거리(카페, 공예점, 체험 공간 등)와 연계하여 관광 동선과 지역 상권이 결합되는 구조를 강화함
  - 관광지 QR 기반 AR 안내 시스템 구축 등 교통·안내·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관광 편의성과 몰입도를 제고함
- 특화 공간의 상시 체험 거점화
  - 가야금 연주 체험, 소규모 공연, 창작 활동이 가능한 상설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체험 기반을 구축함
  - 연지공원, 수릉원, 해반천 등 집객 공간을 음악, 조명, 디지털 체험이 결합된 힐링존으로 조성하고, 디지털 촬영 및 SNS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환경을 지원함
- 지역민·관광객 참여 기반 관광 생태계 구축
  - 시민, 청년,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야금 기반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챌린지를 운영하여 자발적 홍보와 콘텐츠 확산을 유도함
  - 문화관광해설사, 체험 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가야금 이해 교육을 도입하여 전문성 기반의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강화함
  - 지역 작가·공예가와 협업한 가야금 굿즈 및 기념품을 개발하고, 지역 창작자·상권·문화시설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로컬 제작·유통 기반을 확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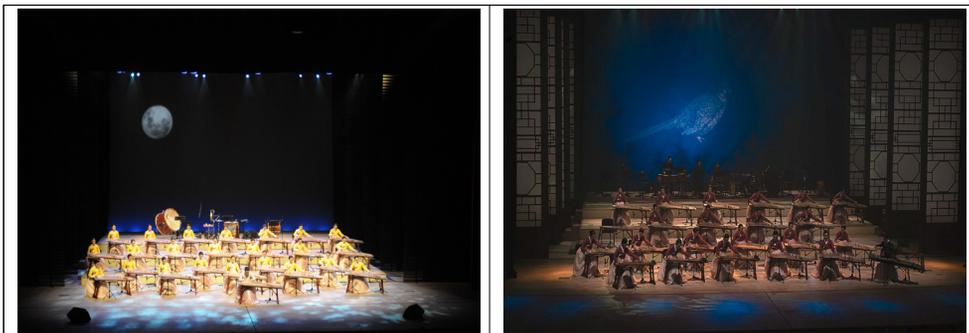
## 5 | 전략과제 4: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 전략

### 1) 추진 필요성

- 앞선 콘텐츠 생산 및 디지털 확장, 관광·공간 연계를 통해 축적되는 가야금의 상징성과 인지도를 도시 차원의 통합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야 정체성 기반 도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함
-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역사적 정체성과 더불어, 가야금의 문화적 토대를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야금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가야금이 지닌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도시 차원의 통합 스토리와 브랜드 체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김해시를 대표하는 문화 정체성 자산으로서의 활용 또한 제한적인 상황임
-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가야금을 단순한 공연 예술 장르로 인식하기보다는 김해의 역사, 인물, 공간,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문화콘텐츠로 재정의하고, 이를 도시 브랜드로 확장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이는 가야금 정책의 방향을 공연 중심 지원에서 도시 정체성 기반 콘텐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며, 문화정책과 도시 브랜드 전략의 연계를 요구하는 시사점으로 해석됨
- 특히 가야금의 기원 설화, 금관가야 역사, 지역 명인과 예술인의 현대적 전승 서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김해형 가야금 스토리’는 향후 공연, 전시, 교육, 관광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원천 IP로 기능할 수 있음
- 이러한 스토리 자산은 가야금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기획·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김해만의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아울러 도시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시각 이미지 중심의 기존 도시 홍보 전략을 넘어 사운드, 공간, 체험 요소를 결합한 감각적 브랜딩 전략은 김해의 문화적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수단임
- 가야금은 이러한 감각적 브랜딩을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지닌 문화자산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김해형 도시 브랜드 전략의 핵심 매개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

## 2) 추진 방안(안)

- 가야금 페스티벌의 가야문화축제 단계적 편입 및 운영 구조 개편
  - 김해시 가야금 페스티벌은 김해를 대표하는 전통음악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축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객 규모 확대와 도시 브랜드 파급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음
  - 반면, 가야문화축제는 김해시의 대표 종합문화축제로서 대중적 인지도와 방문객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야금이라는 김해시 고유 음악 자산이 축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가야금 페스티벌을 가야문화축제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단기) 가야금 페스티벌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가야문화축제 내 핵심 프로그램으로 편입함. 축제 명칭은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로 유지하고, 가야문화축제 공식 프로그램 중 메인 음악 콘텐츠로 배치함
  - (장기) 가야금 페스티벌을 가야문화축제의 공식 서브 브랜드로 재정의하여, 가야금 관련 공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전후로 확장 운영함.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독립 페스티벌 유지 또는 완전 통합 여부를 단계적으로 재검토함



자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부자료

(그림 5-4) 가야금 페스티벌

- 월드 스트링 페스티벌(World String Festival) 추진
  - 월드 스트링 페스티벌은 기존 가야금축제를 국제화·확장하는 전략적 모델로서, 가야금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현악기를 한자리에 집결시키는 글로벌 음악 축제로 기획함

- 특히 2042년 가야 건국 2천 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상징적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전 세계 현악기 연주자 2,04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주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함으로써, 김해 가야금 정책을 대표하는 세계적 이벤트로 육성함
- 월드 스트링 페스티벌은 클래식, 월드뮤직, 포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현악기를 포괄함으로써, 전 세계 현악기 인구와 전문 연주자, 마니아층을 흡수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기획함
- 이를 통해 단기적인 축제 흥행을 넘어, 김해를 현악기 문화가 교차하는 도시, 가야금이 세계 현악기 문화와 만나는 거점 도시로 인식시키는 장기적 도시 브랜드 자산을 축적함
- 해당 페스티벌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단계적 규모 확대와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중장기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함

○ 가야금 기반 도시공간 디자인 및 상징 체계 구축

- 가야금의 형태, 곡선, 문양, 음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반영함
- 주요 관광지 및 도심 거점에 가야금 모티프를 활용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함
- 하천변 산책로, 역사문화 공간 등에 가야금 패턴을 적용한 경관 디자인과 미디어 파사드, 빛 조형물 등 야간경관 연출을 연계함



자료) 고령군 공식 블로그(좌), 김해시 공식 블로그(우)

(그림 5-5) 가야금 상징물

○ 김해 대표 가야금 스토리·시그널 구축

- 가야금의 기원, 가야 역사·설화, 현대적 전승과 창작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김해형 가야금 스토리를 구축하고, 향후 가야금 관련 콘텐츠의 공통 기획 프레임으로 활용함
- 김해를 상징하는 가야금 시그널(도시 브랜드 음악)을 제작하여 축제, 관광, 공공행사, 홍보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함
- SNS 숏폼 콘텐츠의 배경음악, 음원 발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확산 전략을 병행하여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함

○ 가야금 테마 가로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도입

- 가야금 곡면과 울림통 형태를 반영한 벤치, 쉼터 등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함
- 현(絃)의 리듬감을 시각화한 가로등 및 조명 연출을 통해 보행 환경의 상징성과 체험성을 강화함
- 공공 안내판 및 사인 시스템에 가야금의 음계, 문양 요소를 적용하여 도시 전반의 브랜드 일관성을 확보함

○ 가야금 역사·체험·전시 기능을 결합한 거점 공간 조성

- 가야금의 역사, 제작, 연주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 거점 공간을 조성함
- 역사 전시존, 제작 공방 및 공예 체험 공간, 소규모 공연장과 교육실을 결합한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관람·체험·학습이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함



자료) 디지털영암문화대전

(그림 5-6) 가야금 산조 테마 공원(영암군)

- 사운드 스케이프 기반 감성 도시 연출
  - 도시 청각 환경을 가야금 음색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시각 중심의 관광 경험을 감성·체험형 관광으로 확장함
  - 도시 사운드 로고를 개발하고, 경전철, 버스 정류장 등 공공 교통시설에 가야금 기반 안내음을 단계적으로 적용함
- 가야금 테마 거리 및 산책로 조성
  - 가야금 스토리, 문양, 조명,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결합한 체류형 테마 거리 및 산책로를 조성함
  - 역사문화 공간, 상권, 문화시설과 연계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여 관광·소비·체험이 순환되는 지역 활성화 구조를 마련함

## 6 | 전략과제 5: 미래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생태계 구축 전략

### 1) 추진 필요성

- 앞선 콘텐츠·공간·브랜드 전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
- 가야금은 연주 예술을 넘어 교육, 공예, 체험 등 다층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자산이나, 현재 김해시의 관련 프로그램은 연령·수준·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화되지 않아 시민의 접근성과 지속성이 낮은 상황임
-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체험 기회 부족, 청년·성인층의 지속적 학습 경로 부재, 노년층의 취향·치유 중심 참여 프로그램 미흡 등 생애주기별 단절 구조가 가야금 향유 저변 확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참여와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지역·생활공간을 연계한 교육·체험·창작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중요 정책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야금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 체험 중심 접근을 넘어, 입문-학습-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교육·체험 체계와 시민 참여 기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됨
- 아울러 이러한 인재 양성 및 시민 참여 기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체험·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2) 추진 방안(안)

- 세대 맞춤형 가야금 교육·체험 프로그램 체계화
  -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가야금 기초 감성·체험 교육 운영, 방과후·주말형 청소년 음악교실을 통해 창작 활동까지 단계적 확장
  -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가야금 예술교육 추진으로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 학습 경로의 단계화 및 비공식·권고형 중심의 교육 인증 체계 도입 검토
  - 가야금 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단계별 커리큘럼(입문-기초-심화-전문) 구축

- 청년·성인층을 대상으로 현대적 가야금 창작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전문 심화 과정 운영
- 노년층 및 세대통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노년층 대상 가야금 힐링·치유 클래스 운영 및 동호회 중심 생활문화 참여 구조 조성하고, ‘김해 어르신 가야금 경연·발표회’ 개최를 통해 성취 경험과 참여 동기 강화
  - 손자-조부모, 부모-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패밀리 가야금 클래스 운영으로 세대통합형 교육 모델 확산
- 가야금 제작·공예 체험 콘텐츠 개발
  - 목재 선정, 가공, 음향 조율 등 전통 제작 공정을 반영한 반일·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및 소형 모형 악기 또는 장식품 제작 등 결과물이 남는 제작 심화 과정 체험 콘텐츠 구성
- 현대적 공예·디자인 융합 콘텐츠 확장
  - 가야금 문양을 활용한 북마크, 키링, 문진, 모바일 거치대 등 생활형 디자인 상품 개발
  - 김해 분청도자, 목공예 작가 등 지역 장인과 협업한 가야금 생활공예 시리즈 출시를 통해 로컬 브랜드 협업 모델 구축
- 관광 연계형 제작·공예 체험 고도화
  - 고분군·유적 탐방과 가야금 제작 체험을 결합한 ‘가야금 테마 1일 문화관광 코스’ 운영
  - 가야문화축제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및 공예 마켓 운영으로 체류형·참여형 관광 콘텐츠 확장



자료) 고령군청 홈페이지

(그림 5-7) 가야금 제작 및 연주 체험

## 7 | 전략과제 6: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혁신 전략

### 1) 추진 필요성

- 가야금 콘텐츠화 및 관광·문화정책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은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이를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역량과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의해 좌우됨
- 현재 김해시의 가야금 관련 기능은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김해문화원, 교육기관 등 다수의 주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 기획-집행-평가 간의 연계 구조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임
- 특히 공연·교육·체험·축제·디지털 콘텐츠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능 중복 또는 역할 공백이 발생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른 일관된 추진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전문가 자문과 관계자 인터뷰 결과, 가야금 정책을 단기 행사 중심이 아닌 중장기 전략 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 총괄 기능, 기관 간 조정 기능, 전문 인력 기반 실행 체계를 갖춘 운영 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이에 따라 가야금 정책의 중장기 성과 창출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역할의 명확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전문조직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조직 및 운영 체계 혁신이 요구되며, 이는 본 전략체계 전반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종합 관리 전략으로 기능함

### 2) 추진 방안(안)

- 「김해 가야금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가야금 콘텐츠화 및 확장 전략을 단기·개별 사업이 아닌 중장기 문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김해 가야금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거버넌스·사업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본 조례는 가야금을 김해시의 대표 문화자산이자 전략 문화콘텐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야금 관련 정책·사업이 기관별 개별 판단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통합적 체계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야금 진흥의 기본 이념 및 정책 목표, 가야금 진흥을 위한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근거, 공연·교육·체험·관광·국제교류 등 가야금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가야금 정책·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전담 기능 설치 근거, 유관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역할 체계 명시,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역 예술인·전문가 참여 기반 조성, 연차별 실행계획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환류하는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구성함
  - 이를 통해 가야금 관련 정책이 부서·기관별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가야금 정책·사업 총괄을 위한 전담 운영체계 구축
- 가야금 관련 사업을 단일 전담부서 신설이 아닌, 김해문화관광재단 내 조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방식의 가야금 정책·콘텐츠 전담 기능(TF 또는 전담팀)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함
  - 전담 기능의 구체적 역할은 연간 가야금 관련 사업 통합 일정 관리, 축제·공연·교육·체험·관광 콘텐츠 간 중복 여부 사전 조정 등 창구 일원화
  - 김해문화관광재단은 기획·운영·관광 연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연주·창작 중심, 김해문화원은 생활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
  - 5년 단위 증장기 전략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연계한 가야금 정책 로드맵 수립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기능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 연주단은 음악적 완성도와 연주 역량은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으나, 공연 기획·연출 및 관객 친화적 콘텐츠 개발은 개별 구성원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연주단의 기능을 단순 연주 조직에서 콘텐츠 기획·제작이 가능한 복합 기능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야금연주단 감독(예술감독) 채용 기준의 유연화를 통해 연주단의 기능을 연주 중심 조직에서 콘텐츠 제작 조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연주자, 기획자 협업형 운영 구조를 도입하여 연주단 내부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가야금연주단 내 기획·제작 기능의 상설화 여부를 검토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과의 역할 연계를 통해 공연·축제 통합 프로듀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간 협력 및 민·관·전문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전통예술, 문화기술(CT), 관광정책, 공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기(분기별) 운영 자문 체계 구축
  - 김해시, 재단, 연주단, 문화원, 교육기관, 관광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가야금 정책 협의체 운영
  - 시민기획단, 청년 콘텐츠 기획단을 구성하여 축제·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 확대
  - 민·관·전문가 협력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
-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실행 역량 강화
  -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디지털 콘텐츠, 관광상품 기획 등 분야별 전문인력 단계적 확충
  -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획·콘텐츠 제작 인턴십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과 실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등 중앙·광역 단위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자원 다각화 및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발굴
  - 시민 체감도 조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관리 등 피드백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VI 결론

### 1 | 연구 결과 요약

#### ▣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김해시의 가야금 정책은 1991년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1997년 대통령상 격상, 1998년 전국 최초 단일 악기 연주단(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창단으로 이어지며, ‘교육-경연-전문연주-축제’로 연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정책과 사업 구조가 경연대회 및 행사 운영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일상적 향유를 통한 대중 인지도 확산, 인재 발굴 이후의 성장·활동 경로 설계, 인력·공간·행정 측면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됨

#### ▣ 보존·계승 중심에서 창작·활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전문가 자문 결과,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국립기관이 담당하는 전통 보존·계승 기능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고유 영역으로서 전통 기반 창작·활용(산업적 확장 포함)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통된 인식이 도출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전통 보존·계승 중심 단계에서 전통 기반 창작·활용 중심 단계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며, 가야금을 도시 전략 문화콘텐츠로 기획, 실험, 제작, 브랜드화, 대외교류까지 포괄하는 정책 플랫폼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도출됨

#### ▣ 경연대회·페스티벌의 기능 재정립 필요

- 가야문화축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가야금 페스티벌’ 위상 강화
  - 현재 가야문화축제 내 개별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가야금 관련 콘텐츠를 독립적 기획 단위의 가야금 페스티벌 재구성하여,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자 대표 콘텐츠로 육성함

- 역사·의례·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가야문화축제의 기존 구조에 가야금이라는 상징적 예술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축제 전반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집중도를 제고함
- 이를 통해 가야문화축제는 가야 역사문화 종합축제로서의 외연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야금 페스티벌이라는 명확한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여 타 지역 역사문화축제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대중화 전략은 창작·융합 콘텐츠 선행 후 전통성 확장 구조로 설계 필요**

- 가야금의 낮은 대중 인지도를 고려할 때, 전통 형식의 직접적 전달보다는 대중의 흥미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작·융합 콘텐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 특히 창작(작곡·편곡·장르 융합) 성과물이 단발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영상·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심이 전통 영역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이행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운영 기반 구축 필요**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정책 전환의 핵심 실행 주체로서, 관내 공연 중심 역할을 넘어 국내외 교류, 상징적 무대 참여 등을 수행하는 도시 대표 예술단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한 편성 구조와 상향식 운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아울러 전문 기획·행정 인력 확충, 연주자 처우 개선 및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안정적인 연습공간과 부대시설 확충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도출됨
- 더 나아가 가야금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학술 기반(연구·기록 축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협력 거버넌스(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구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2 | 정책적 제언

### ▣ (정책 기초) 보존 주체가 아닌 전통 기반 창작·활용 주체로의 역할 재정립

-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김해시 가야금 정책은 중앙정부 및 국립·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전통 보존·계승 기능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활용·확산을 전담하는 지역 정책 주체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가야금 정책을 단일 예술 진흥 사업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형 콘텐츠 생산, 공간 전략, 거버넌스가 연동되는 도시 문화전략으로 관리해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위해 가야금 정책은 단년도 행사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성과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함

### ▣ (핵심 실행 주체)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도시 대표 콘텐츠 엔진화

-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은 관내 공연 운영 조직의 역할을 넘어, 창작 실험·상징적 무대·대외 교류를 선도하는 도시 대표 가야금 콘텐츠 엔진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연주단의 기능은 기존의 연주 중심 조직에서 콘텐츠 기획·제작을 병행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연 기획·연출·브랜딩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감독(또는 예술감독) 채용 기준은 가야금 연주자 출신 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 공연기획·무대연출·축제 운영·콘텐츠 프로듀싱 등 관련 분야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인력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해야 함
  - 전통음악 전공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닌 우대 요건으로 조정
  - 공연·축제 기획 경험, 콘텐츠 제작유통 실적 등을 핵심 평가 항목으로 설정함
- 아울러 단일 감독에게 음악·기획·연출 기능을 모두 요구하기보다는 연주단은 음악 창작과 연주에 집중하고, 감독 또는 외부 전문 PD는 공연 구성·연출·관객 경험 설계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 단위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병행하여 운영 부담과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시적 전환 과제) 가야금 페스티벌 콘텐츠 구조의 즉각적 재편

- 가야금 페스티벌은 경연·전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작·융합·체험 중심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즉각적인 구조 전환이 요구됨
  - 2026년 기획 단계부터는 경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공연·체험참여형 콘텐츠 비중을 확대하는 시범 운영을 추진해야 함
  - 가야금과 타 현악기, 타 장르 음악, 영상·무용·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융합 공연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페스티벌은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가야문화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김해 가야 역사와 음악 자산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대표 문화축제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아울러 가야금 경연대회는 단순 수상 구조를 넘어, 인재 발굴, 창작 지원, 무대 연계, 활동 확산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로 전환해야 함

▣ (콘텐츠 전략) 가야금 콘텐츠의 연중 상시화 및 관광 콘텐츠화

- 현재 가야금 콘텐츠가 축제·행사 시기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여, 연중 상시 향유 가능한 관광·문화 콘텐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축제 외 기간에도 활용 가능한 소규모 상설·순환형 공연 포맷을 개발하고, 30~40분 내외의 스토리형 공연을 핵심 관광지에서 주말 정기 공연 형태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콘텐츠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관광 동선 설계, 홍보, 상품 기획과 연계하여 관광 콘텐츠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중기적으로는 가야금 공연을 김해형 야간관광 및 체류형 관광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역사 해설과 결합한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야금 콘텐츠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국어 해설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정책 담보 장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과 정책 정당성 확보

- 가야금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 가야금 진흥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 기획·행정 인력 확충, 연주자 처우 개선, 안정적인 연습·제작 공간 확보를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함
- 아울러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재원 다각화를 병행하고, 성과지표·만족도·체감도 조사에 기반한 피드백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제도화하고, 가야금 관련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정당성 및 대외 확장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김해시 가야금 정책의 핵심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결단에 있음

| 참고문헌 |

- 고령군(2024), 「제33회 고령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요강」
- 고령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kory/222691263887>, 검색일: 2025.11.27.
- 고령군청, <https://www.goryeong.go.kr/kor/contents.do?IDX=275>, 검색일: 2025.1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악진흥법」, 법률 제195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06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20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20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155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186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조례 제17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8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82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8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70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8780호.
- 국립국악원(2024), 「제39회 온 나라국악경연대회 안내문」
- 국정기획운영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김면 외(2024),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해문화관광재단(2011~2025), 내부자료.
- 김해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imhae4you>, 검색일: 2025.11.27.
- 김해시 문화예술과(2025), 「김해시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 김해시 문화예술과(2025), 내부자료.
- 김해시 온라인 관광안내소, [https://blog.naver.com/gtour\\_guide](https://blog.naver.com/gtour_guide), 검색일: 2025.09.22.
- 김해시(2024), 「연도별 인구통계」

- 김해시관광포털,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공연연보”, <https://www.gimhae.go.kr/tour.web>,  
검색일: 2025.09.29.
- 노수경 외(202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더불어민주당(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광역공약배포용)」  
디지털영암문화대전, <https://yeongam.grandculture.net/yeongam>, 검색일: 2025.12.09.
-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2024), 「문화 분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4),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site/main.jsp>, 검색일: 2025.09.22.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2024), 내부자료.
- 수원문화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lturenight\\_suwon&logNo=223884253344&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lturenight_suwon&logNo=223884253344&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검색일:  
2025.12.16.
- 안동관광, <https://www.tourandong.com>, 검색일: 2025.12.16.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https://www.maskdance.com>, 검색일: 2025.12.16.
- 의령군 문화관광과(2024), 내부자료.
- 전남 구례군(2024), 「제22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개최요강」
- 전주소리축제, <https://www.sorifestival.com>, 검색일: 2025.12.15.
- 정미경 외(2025), 「2024년 콘텐츠 프로젝트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김해시 대표 예술 가야금 콘텐츠화 및 확장 방안 연구

---

---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http://www.ghri.re.kr)  
ISBN : 979-11-991749-9-3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